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17

피아노 Piano

글. 김성현 ubc 울산방송 미디어기술국 부장

연재 목차

- 13편. 트롬본
- 14편. 호른
- 15편. 튜바
- 16편. 기타
- 17편. 피아노
- 18편. 파이프오르간
- 19편. 유율타악기
- 20편. 무율타악기 및 에필로그

이 글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를 매회 하나씩 소개한다. 악기 소개는 개요, 구조, 종류, 뒷이야기 등의 열개로 기술되며 방송 현업 하시는 분에게 악기에 대한 이해와 교양으로써 상식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피아노^{Piano}를 들어가며

오케스트라는 현악기군, 목관악기군, 금관악기군, 타악기군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아노는 오케스트라의 악기로 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작품에 따라 피아노가 포함될 수 있으며(대부분 러시아 악파에서 찾아볼 수 있음) 피아노 협주곡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악기이다. 게다가 피아노는 ‘악기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악기로서 건반악기의 대표주자이다. 건반악기는 종류들이 다양하기에 오케스트라 악기와는 관계없지만 건반악기군으로 하여 관련 악기 몇 가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자.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있다. 노다메 칸타빌레는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으며 여주인공은 피아노를 전공하는 대학생인데 지휘자를 꿈꾸는 남자 선배와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와 음대생들의 애환을 그린 이야기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도 ‘다섯손가락’과 ‘내일도 칸타빌레’ 같은 피아니스트를 다룬 드라마를 방영했었다. 이처럼 여러 드라마의 소재가 될 정도로 피아노는 우리 주변에 흔한 악기이며 악기 모양과 음색은 너무나 친근하다. 하지만 우리는 의외로 피아노에 대해서 몰랐던 점이 꽤 있을 텐데 한 가지씩 알아보자.



노다메 칸타빌레 / imdb.com

피아노의 개요

피아노는 건반과 연결된 해머가 현을 때려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 중에서도 타현악기라고 부른다. 건반이 설치되어 있어서 하프시코드, 파이프 오르간, 첼레스타, 신시사이저(전자악기의 일종)와 함께 건반악기에도 속한다. 피아노의 전신인 하프시코드는 새의 깃축으로 만든 플렉트럼으로 현을 튕기는 발현악기이다. 피아노가 발명되기 전에는 하프

시코드가 성행하였는데 이는 하프처럼 현을 튕겨서 연주 하기 때문에 ‘하프시코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프시코드의 단점은 플렉트럼이 현을 튕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세계 치거나 약하게 쳐도 음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였다. 즉 소리의 강약을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 1709년 피렌체의 악기 제작자 크리스토포리Cristofori가 펠트천으로 씌워진 목재 해머로 현을 때려서 강약을 표현할 수 있게 개량한 것이 피아노이다. 처음에는 포르테피아노 Fortepiano(세계 여러개)에서 피아노포르테로 부르다가 줄여서 피아노(여리게)라고 하게 되었다. 강약과 장단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훗날 쇼팽과 리스트 같은 훌륭한 작곡가와 비르투오소가 등장하게 된다.

이로 인해 피아노 하나로 표현해내는 음의 세계가 수십 명의 단원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소리에 못지않은 압도적인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피아노는 전 세계 음악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악기가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18세기 초에 1인 오케스트라로 꼽을 수 있는 혁신적인 악기 피아노가 발명되었지만 백 년이 지나서야 융성하게 된다. 19세기를 피아니스트의 시대, 20세기를 지휘자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에서 피아노가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오늘날 피아노는 대중적이며 가장 인기 있는 악기로 자리 매김했다. 피아노가 이러한 위치를 차지한 이유는 첫째로 화성, 반주, 리듬, 멜로디를 표현할 수 있어 모든 장르의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피아노 자체의 레퍼토리가 엄청나게 많고 셋째로 피아노는 보컬과 더불어 거의 모든 악기의 반주를 할 수 있으며, 마지막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지 않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교육용 악기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피아노의 건반은 보통 8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7옥타브 이상의 음역대를 표현한다. 위쪽은 검은 건반 아래쪽은 흰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프시코드의 경우는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피아노의 현은 독특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낮은음은 단선(13번까지는 1개), 중음은 복선(32번까지는 2개)이며, 고음으로 올라가면 한 음을 세 개의 현이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피아노를 조율할 때는 복잡한 과정과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 같은 음을 내는 둘 혹은 세 개의 현의 음정을 맞추어야 하고 그 후에 한 옥타브 안의

반음을 포함한 열두 음을 맞추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 88개의 상대적 음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피아노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며 그들은 고도로 예민한 음감과 숙련된 기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의 음색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는데 피아노의 기본 음색은 사용되는 나무, 섬유, 금속 등의 재질과 제작기술의 노하우에 좌우되지만, 연주 중에도 페달을 사용하여 음색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음색의 변화를 극적으로 연출한 아티스트이자 작곡가 존 케이지John Cage는 피아노의 현에 나사, 플라스틱, 고무, 지우개 같은 것들을 끼워 전혀 다른 음색과 음향을 만들어 내었다. ‘준비된 또는 조작된 피아노Prepared Piano’가 그것인데 ‘Sonatas and Interludes for Prepared Piano’란 작품 외에 다수가 있다. 그리고 그는 불교(특히 선종)의 사상과 주역에서 침묵과 우연성을 배우고 현대 물리학인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에 깊은 영향을 받아서 그의 작품에 대입하게 되었는데 피아노를 전혀 연주하지 않는 피아노 소나타 ‘4분 33초’를 작곡하기도 했다. 3악장의 구성으로 각 악장은 침묵Tacet이란 표제를 써놓았으며 연주자는 시계를 들고나와서 악장마다 피아노의 건반을 여닫는 것으로 나누었다. 콘서트의 4분 33초 동안 발생하는 관객의 소리뿐 아니라 주변 소음조차도 모두 음악이라고 그는 정의하였다. 피아노의 물리적 메커니즘은 거의 진화를 끝냈다고 볼 수 있는데 남은 숙제는 어떻게 하면 피아노의 수명을 늘리고 음질을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관건으로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처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피아노를 만드는 것이다.



존 케이지와 Prepared Piano /newyorker.com

This diagram illustrates the internal structure of a grand piano. The lid is open, revealing the cast iron plate, sound board, and strings (treble and bass). The keyboard, hammers, and tuning pins are also visible. The piano is supported by legs and has pedals at the base. The wheels are shown at the bottom of the legs.

- Lid
- Cast iron plate
- Sound board
- Treble strings
- Tuning pins
- Keyboard
- Wheels
- Pedals
- Legs
- Hammers
- Bass strings

pressure bar

tuning pin

pin block

hammer

muffer felt

case

hammer rail

key

keyboard

treble bridge

strings

bass bridge

sound board

pedal rod

soft pedal

muffer pedal

damper pedal

hitch pin

metal frame

건반

액션

A detailed illustration of a complex mechanical device, likely a steam engine or pump, featuring a large flywheel, various gears, and a horizontal base with the brand name 'RENNER' visible. The device is shown in a side profile, highlighting its intricate internal components and the large flywheel on the left. The base is a long, horizontal wooden structure with the name 'RENNER' inscribed on it. The entire mechanism is supported by a series of vertical posts and a complex arrangement of gears and levers. The illustration is in a classic, hand-drawn style with a limited color palette of browns, greys, and reds.

업라이트 피아노 액션 / rennerus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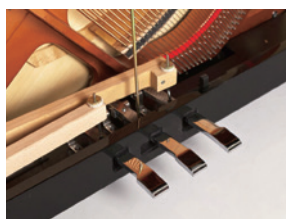
해머

118 Broadcasting & Technology

현, 프레임, 공명판

피아노 현의 수는 약 220개 정도이며 이 현들이 당기고 있는 장력은 총 20톤이 넘는다. 나무로는 이 엄청난 힘을 버틸 수 없기에 피아노 현을 걸게 되는 프레임은 철재로 만든 후에 이것을 공명판에 붙여 울림을 만들어 낸다. 공명판은 가문비나무를 주로 사용하며, 바이올린의 앞판에도 사용된다. 나뭇결이 곧아서 소리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페달



페달 / eastneupianos.co.uk

페달은 3개가 기본인데,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먼저 그랜드 피아노의 페달을 왼쪽부터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그랜드 : 소프트(soft)=(시프트shift) 페달, 소스테누토(sostenuto) 페달, 댐퍼(damper) 페달
- 업라이트 : 소프트 페달, 연습(practice) 페달, 댐퍼 페달

그랜드 피아노

- ① 왼쪽 : 이 페달을 밟으면 건반과 액션이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시프트shift) 현을 때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음색도 미묘하게 변화한다. 인상과 음악의 신비스런 음색 또는 산울림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한다. 쇼팽의 녹턴에서와 같이 음량은 같은 포르테를 유지하면서도 이로 인해 거칠어진 음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 ② 중간 : 어느 특정 음의 소리를 지속해서 울리게 할 수 있다.(이 페달을 밟기 바로 전에 누른 건반(들)의 댐퍼만 현에서 떨어져 그 음(들)만이 여운이 남게 된다.) 이 페달은 19세기 말엽에 처음으로 스타인웨이인사에서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그랜드 피아노의 가운데 위치하고 왼발로 누른다. 건반의 한 음을 누른 다음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으면 손가락은 다음 음을 계속 소리를 내는데도 이전에 누른 음만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어 오르간의 페달 포인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댐퍼 페달과 달리 누른 건반의 댐퍼만이 현에서 떨어져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의 음만 길게 울리고 다른 음은 또렷한 스타카토를 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 ③ 오른쪽 : 이것을 밟으면 현을 누르고 있는 댐퍼(울림을

멈추는 기능)가 일제히 현에서 떨어져 돌아오지 않으며, 건반을 친 후 건반에서 손가락을 떼어도 현의 진동이 지속된다. 연주한 현은 모두 공명하기 때문에 음량이 커지는 동시에 울림이 풍부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악보에 표기된 페달 기호는 일반적으로 이 페달을 의미한다.

업라이트 피아노

- ① 왼쪽 : 이 페달을 밟으면 해머 전체가 현으로 움직여 타 현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부드럽게 된다.
- ② 중간 : 이 페달을 밟으면 해머와 현 사이에 펠트천이 내려와 음량이 대폭 줄어든다. 연습 시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할 때 사용한다. 그랜드 피아노에서의 중간 페달(소스테누토 페달)과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한다.
- ③ 오른쪽 : 기능은 그랜드 피아노와 같지만 업라이트 피아노의 경우에는 건반 액션의 구조상 수직 방향으로 붙어 있는 댐퍼가 횡적 이동에 중력을 이용할 수 없어 댐퍼의 움직임은 그랜드 피아노만큼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페달을 미묘하게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피아노의 종류

그랜드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전자 피아노로 나뉜다.

그랜드 grand 피아노

- ① 일반적인 수평형이며 연주회장이나 콘서트에 사용된다. 건반과 현이 같은 수평면에 있고 해머가 현을 아래에서 위로 때리는 구조이므로 강약 표현에 강하다.
- ② 해머가 아래에서 현을 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다음 타현을 빨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트릴이나 연타에 유리하며 애프터 터치가 깨끗하게 느껴진다. 또한 피아니시모와 포르티시모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강약의 폭이 넓다.
- ③ 댐퍼도 자체 무게로 내려와 현을 누르기 때문에 정확히 음에서 멈출 수 있다.
- ④ 소프트 페달을 밟으면 음량이 작고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음색도 변화시킨다.
- ⑤ 소스테누토 페달을 사용하면 특정 음만을 오래 울리게 할 수 있어 음악에 보다 풍부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
- ⑥ 본체의 밑에서 소리가 퍼지는 것뿐만 아니라 덮개를 열면 훨씬 크고 멀리 소리를 보낼 수 있다.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 ① 주로 학원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수직형 피아노이다. 건반의 수직운동을 해머의 수평운동으로 바꾸어 현을 때린다.
- ② 해머가 현을 수평으로 치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스프링의 힘을 빌려야 한다. 건반에서 손가락을 떼어 건반이 전체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타현이 힘들어진다. 애프터 터치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으므로 섬세한 뉘앙스를 표현하기 힘들다.
- ③ 댐퍼도 액션의 움직임에 연결되어 움직이며 스프링의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음을 멈추는 효과도 약간 떨어진다.
- ④ 소프트 페달을 밟으면 해머가 현에 가까운 위치에서 타현함으로써 음량이 작고 부드러워진다.
- ⑤ 연습 페달을 밟아 머플러가 현과 해머 사이에 위치해 전체 음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 ⑥ 공명판의 모양은 장방형이라는 설계의 제약을 받으므로 고음부, 저음부에서는 자연스러운 배음이 나기 힘들다.

디지털^{digital} 피아노와 전자키보드(= 신시사이저)



디지털 피아노는 전자회로와 스위치 형식의 건반을 채용한 전자악기이다. 아직은 취미나 보조 연습용으로 적합하며, 실제 피아노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하여도 건반의 터치감도 떨어지며 음색 또한 실제 음과 비교해서 풍요롭지 않다. 하지만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자리를 덜 차지하기에 가정에서 점차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 전자키보드^{electric keyboard} 혹은 신시사이저^{synthesizer}의 경우에는 대중음악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샘플링 기술을 도입한 전자키보드의 경우에는 무한한 음색 편집, 가공, 수정이 가능하여 다양한

음악 장르에 이용되고, 특히 프로그레시브락(= 아트락)에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악기이다.

대표적으로 Pink Floyd라는 대중적인 밴드가 있는데 첨부 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신시사이저는 음색을 다양하게 만들어 편집하고 합성할 수 있어 우주적인 사운드와 신기한 소리는 거의 이 악기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자악기는 종류가 무척 다양한데 지면상 생각한 악기로는 테레민, 웅드 마르토노, 로즈 피아노, 무그 신시사이저, 하몬드 오르간, 윌리치 일렉피아노, 호너 클라비넷, 멜로트론 등이 있는데 향후 필자가 이 연재물을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되면 이 악기들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피아노에 관련한 뒷이야기

피아노 박물관

2019년 7월에 제주도에서 개관한 피아노 박물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개인 소장박물관으로 세계적인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이 조각한 전 세계 유일한 피아노와 24K 황금 피아노 등 진귀한 피아노들을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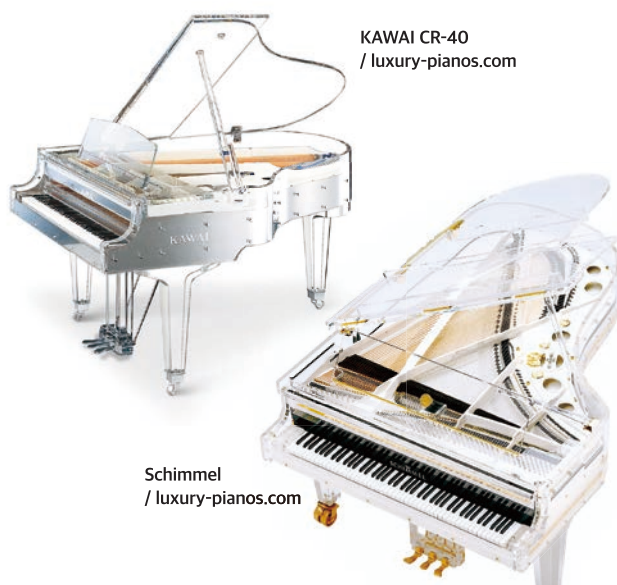
그랜드 피아노의 덮개

음악회에서 성악이나 다른 악기를 반주하는 경우는 피아노의 음량이 작아야 해서 위 덮개를 완전히 닫거나 조금만 연다. 반면에 피아노가 주역이거나 협연하는 음악회는 음량을 더욱 크게 하려고 덮개를 관객 쪽으로 열어서 연주한다. 앞으로 클래식 음악회에서 관찰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크리스탈 피아노

크리스탈 피아노는 투명한 아크릴로 만들어서 속이 흰

히 보이며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제품으로 KAWAI, Blüthner, Schimmel 사에서 제작하고 있다. X-JAPAN(일본의 인기 락밴드)의 리더 요시키Yoshiki는 KAWAI 사에서 제작한 제품 YOSHIKI Signature piano(CR-40을 개조한 것으로 1억 원이 훨씬 넘는 가격)를 그의 라이브 연주에 사용한다. 2018년 10월에는 새로운 모델(CR-1M)이 5대 한정 출시되었는데 1억 엔(약 10억 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몇 대의 크리스탈 그랜드 피아노를 볼 수 있는데 부산 해운대 모 호텔에서 쉼멜 피아노로 라이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가수 조성모가 2003년 활동 당시에 1억 원에 구입한 크리스탈 피아노(KAWAI CR-40)를 공개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KAWAI CR-40
/ luxury-pianos.com

Schimmel
/ luxury-pianos.com



Blüthner / luxury-pianos.com



조성모와 크리스탈 피아노 / 유튜브

스타인웨이Steiway & Sons 피아노

스타인웨이, 뵘젠도르퍼, 벡스타인 정도의 회사가 세계 3대 명품 피아노 제조사로 알려졌다. 그중에서 단연 으뜸이 스타인웨이 제품이다. 음대생, 연주자들에게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바이올린에서 스트라디바리처럼 동경의 대상이요 로망이다. 그랜드 피아노의 경우에는 가격이 수억 원을 호

가하며 일반인들은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런 고가의 비싼 피아노는 당연히 소리도 아름답고 훌륭하리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기본기(올바른 타건과 릴렉스)가 탄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어느 정도 치기만 해도 예쁜 소리가 나는 아마하 피아노도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학생과 차별화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교수들은 스타인웨이를 좋아한다고 한다.

여기 필자가 어느 카페에서 읽은 스타인웨이에 대한 일화가 있다. 스타인웨이를 잘 몰랐던 어느 십 대가 피아노 콩쿠르에 출전해서 이 피아노를 만나게 되었고 꿈에도 그리던 명품을 직접 연주하게 되었는데 상상해왔던 아름답고 영롱한 소리가 아닌 플라스틱 때리는 소리가 나니 완전 멘붕이 왔을 것이다. 이 학생의 경우 여기서 피아노를 그만두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학생은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가격만 비싸지 음질은 형편없어. 왜 그런 피아노를 못 써서 안달이야. 너 무나도 이해가 안 가”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할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어떤 피아니스트가 기본기가 없으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댓글을 달았고 글쓴이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더욱 피아노에 정진하겠노라는 답글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은 적이 있었다. 우리는 무엇을 하던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양 착각하는데, 이 이야기가 좋은 교훈이 되리라 생각되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스타인웨이 로고
/ steinway.kr



최고의 모델 D-274
/ klavierbauer.de

삼익악기와 스타인웨이의 지분 전쟁

스타인웨이, 야마하를 이어 세계 3대 피아노 제조사인 삼익악기는 중저가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고 명품 브랜드로 부상하기를 갈구했다. 그 돌파구로 스타인웨이를 인수하기 위해 2008년부터 모든 노력을 동원했는데 5년 동안 스타인웨이 주식 매입에 쏟아부은 돈만 853억 원이나 되었다. 하지만 스타인웨이 경영진들의 철통방어 장벽에 막혀 결국 2013년 9월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삼익악기가 그토록 원했던 명품화 전략은 당분간 보류해야 하지만 대신 소유 지분 전체를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인 1,635억 원에 되팔아 이 시세차익으로 악기의 고급화와 글로벌 진출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뵘젠도르퍼Bösendorfer 피아노



테오필 한젠이 설계한 피아노
/ 다음 블로그



290 IMPERIAL
/ coachhousepianos.co.uk

뵘젠도르퍼 사는 182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설립된 피아노 제작 전문 회사로 Ignaz Bösendorfer가 창업하였다. 당시 젊은 피아니스트인 리스트Liszt는 자신의 화려한 테크닉과 강력한 힘을 그 시점에 제작되는 수준으로는 받쳐주지 못해 수많은 피아노를 전전했다. 결국 뵘젠도르퍼 피아노를 만난 리스트는 이 피아노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고 평생 자신의 전용 연주 피아노로 사용한다. 만약 뵘젠도르퍼 피아노가 없었다면 음악 역사상 ‘피아노의 신’으로 일컫는 리스

트는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왕궁에서는 리스트의 연주를 위해 뵘젠도르퍼를 준비했고 그의 탁월한 연주와 피아노 소리에 깊은 감명을 받은 황제는 뵘젠도르퍼에게 ‘황실 및 연주홀 피아노 제조자’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이후 뵘젠도르퍼는 장인정신과 기술력을 인정받는 세계 최고의 피아노 제작사로 자리 잡게 된다.

1900년경 작곡가 페루치오 부소니Ferruccio Busoni가 바흐의 오르간 음악을 피아노로 편곡하면서 뵘젠도르퍼에 새로운 피아노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루드비히 뵘젠도르퍼는 8옥타브에 길이가 290cm가 되는 그랜드 피아노를 제작하였다. 오늘날 이 모델은 뵘젠도르퍼를 대표하는 최고의 제품으로서 ‘임페리얼Imperial’이라는 제품이 된다. 당시에 루드비히 뵘젠도르퍼가 피아노를 설계할 때 당대의 유명한 건축가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빈 악우회 건물을 설계한 테오필 한젠Theophil Hansen, 요셉 호프만Josef Hoffmann 등이다. 이들은 각각 자기 고유의 디자인으로 뵘젠도르퍼 피아노를 설계하였다.

후손대에서 운영 능력 부족으로 미국회사로 넘어갔다가 오스트리아에서 자각 운동이 일어나서 되찾지만 2008년경 다시 일본의 야마하가 인수하게 되었다. 사진은 97 건반을 장착한 8옥타브의 그랜드 피아노 ‘290 IMPERIAL’이다. EBS 다큐프라임 ‘음악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가’에서 한국인 피아니스트로는 최초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을 완주한 박종훈이 출연하며 이 뵘젠도르퍼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피아노 교육의 적정 연령

아이들에게 적절한 피아노의 교육 시기는 7세 전후가 지배적인데 악보의 이해력이나 집중도, 손의 크기 등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전의 연령대에 음악교육은 음감을 익히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놀이로써 접근하는 방식이 좋으며 무리하지 않고 초보적인 교재를 이용하면 재미있게 체험하면서 피아노를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조율(튜닝)의 주기

조율은 바른 음률을 맞추는 것으로써 흐트러지고 부정확한 음을 내는 각각의 소리를 바르게 맞추는 것이다. 배우는 아이들의 경우 조율을 하지 않고 연주하면 잘못된 음감을 심을 수 있으므로 조율은 아주 중요한데 조율 주기는 대략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적당하다. 대개 일반 가정의 경우 1년에 한

번쩍은 하는 것이 피아노 성능 및 바른 음색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리스트

피아노 역사상 쇼팽과 리스트는 거대한 양대 산맥이다. 리스트는 초절정 미남 비르투오소로서 손가락이 얼마나 길고 강했는지 매년 연주 때마다 현을 끊어먹고 해머를 부러뜨렸다.(항상 그의 연주회에 3대의 피아노가 비치되어 있었고 연주 중에 피아노가 망가지면 호느적거리며 걸어가 다음 피아노에서 연주를 계속했음) 그의 연주는 전 유럽에서 항상 초미의 관심사였으며, 그가 연주하러 가는 도시의 여성들은 며칠 전부터 설렘에 잠 못 이룰 정도로 쇼맨십이 강했던 피아니스트였으며 연주 도중에 실신하는 여자들도 많았다고 한다.



리스트 / soundcloud.com



베를린 공연 / pianostreet.com

달성 100대 피아노 콘서트

경북 고령군 사문진 나루터에서는 해마다 1번씩 피아노 100대를 모아서 콘서트가 진행된다. 이곳은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피아노가 유입된 장소라고 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공연이라고 한다. 오디션을 통해서 100명을 모아 수많은 연습을 한다지만 아무래도 제각각 노는 피아노들을 하나로 맞추기는 힘들다. 그래서 합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아노를 음역대별로 파트를 나누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연주하고, 또한 모든 연주자가 귀에 꽂은 인터컴을 통해서 지휘자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달성 100대 피아노 콘서트 / 유튜브

미스터 빈의 연주(?)

영국의 시트콤 ‘미스터 빈’으로 유명한 배우 로완 앳킨스가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2012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피아니스트로 등장했다. 첨부된 동영상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사이먼 래틀을 살짝 당황하게 만드는 그의 연주를 감상해보자!



미스터 빈의 연주 / 유튜브

레고로 만든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를 레고로 조립하여 소리를 낼 수 있는 제품이 현실적 음악 교사의 아이디어로 현실화하였다. 실제 그랜드 피아노의 액션, 해머의 작동 원리와 움직이는 댐퍼 페달을 그대로 재현했다. 게다가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실제 연주도 가능하며 제품에 내장된 모터로 건반을 자동 연주할 수 있다.



레고 그랜드 피아노 / ego.com

피아니스트 문지영

2014년 제네바 콩쿠르 3관왕(1위, 청중상, 특별상)에 2015년 한국인 최초 부조니 콩쿠르 1위를 차지한 문지영은 촉망받는 젊은 피아니스트이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온종일 학원에서 연습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종이로 그린 피아노와 멜로디언

으로 연습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아트 드림 콩쿠르 중등부에서 1위를 하면서 당시 심사위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대진 교수를 처음 만나게 되고 그에게 계속 지도를 받게 된다. 2014년에는 한국 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수석으로 입학했으며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뚜렷한 그만의 연주관이 서 있는 연주자로 평가되고 있다. 어렸을 적 어두운 새벽길을 걸어서 학원으로 갈 때 피아노를 칠 생각에 전혀 무섭지 않았다는 그녀는 부조니 콩쿠르 중 연주장에 박쥐가 날아다니는 해프닝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연주를 하였다고 한다. 그녀를 보면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한다면 하늘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꼭 주는 것이리라.



피아니스트 문지영 / kocis.go.kr

하프시코드

하프시코드는 피아노의 전신으로 피아노가 나오기 전 16~18세기까지 꽤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건반악기다. 피아노의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현을 뜯는 방식(발현악기)의 하프시코드는 피아노에 비해 크기가 작고 디자인이 아름다워 귀족들의 사랑을 받았다. 모양이 아름다워 가구로도 충분히 인기가 있었으며 어여쁜 귀족 부인이 그 가늘고 기다란 흰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자태를 상상해보라! 그래서 피아노와 달리 긴 건반이 검정색인 경우가 많다. 연주하는 예쁜 손가락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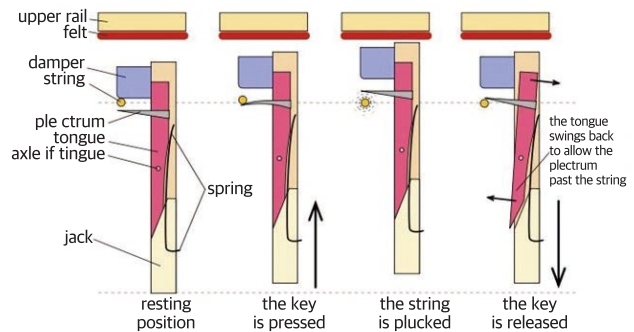
하프시코드 / dummies.com



하프시코드의 어원은 하프처럼 현을 뜯는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으며 피아노가 발명되기 전까지 집마다 소유할 정도로 흔하고 인기 있는 악기였었다. 하지만 음의 섬여림을 표현할 수 없었으며 음량조차 작아서 연주회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점차 피아노에 그 위치를 빼앗겨 버렸다.

필자는 이 악기에 대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주회가 끝나고 무대 위에 놓인 하프시코드를 보고 실제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남이 볼까 몰래 몇 개의 건반을 살짝 눌러 보았다. 아뵤싸 세게 치나 약하게 치나 똑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약하게 누른 것이었다. 역시나 소리의 크기는 같았었다.

하프시코드(Harpsichord)는 영어권 표기이며 이태리와 독일에서는 쳄발로(Cembalo)라고 표현한다. 프랑스에서는 클라브생(Clavecin)으로 부르며, 피아노는 현을 때려(타현악기) 소리를 내지만 하프시코드는 가죽으로 된 고리나 새의 깃 축 등으로 현을 튕겨서(발현악기) 소리를 낸다. 소리는 아주 맑으면서 경쾌하다. 발음의 원리는 피아노의 경우 해머로 현을 때리는 반면 하프시코드는 플렉트럼으로 현을 뜯는다. 연주자가 건반을 누르게 되면 반대쪽 끝이 올라가게 된다. 이 반대쪽에 잭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에 플렉트럼이 장착되어 있다. 이 플렉트럼이 현을 튕기며 다시 내려오게 된다.



하프시코드 잭과 플렉트럼 / wikipedia.org



하프시코드 잭 레일 / baltimorerecorders.org

비슷한 악기인 클라비코드에 비해 화려하고 강한 음이 나며 음량도 풍부하지만 건반의 터치로 음의 쉼여림을 변화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반을 2단 또는 그 이상으로 하든가 또는 페달이나 스톱 등으로 음색이나 음량을 바꾸어 연주한다. 게다가 동시에 많은 음을 발생함으로써 바로크 시대의 음악에서는 독주 악기로 사용되었으며 합주에서도 중심적인 악기로 활동했다. 또한 연주자들은 음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트릴을 많이 구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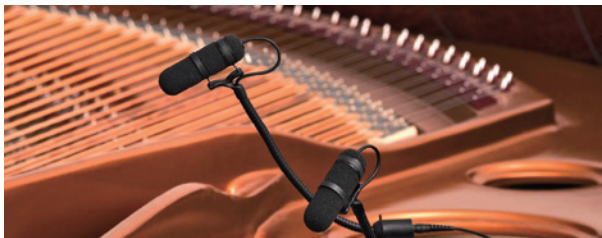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여러 형태를 한 악기가 각기 다른 이름으로도 존재하였으나 크게 그랜드형과 업라이트형으로 나뉘며, 그랜드형 가운데 긴 날개를 지닌 대형악기를 하프시코드라 하고, 직사각형과 다각형 상자 모양을 한 것을 버지널, 스피넷 등으로 불렀다.

피아노의 마이킹

방송현장과 음반 레코딩은 엄연히 다른 시장이다. 방송은 카메라로 영상을 잡기 때문에 마이크의 위치나 수량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음질에 욕심내다 보면 자칫 영상이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상과 음향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게다가 야외 공연의 경우엔 대용량 PA 시스템까지 동원됨으로 인해 원거리 마이킹보다는 근접 마이킹 방식을 선택하여야 피드백과 주변 소음으로부터 나를 자유로울 수 있다. 피아노의 근접 마이킹은 저역 현과 고역 현을 나누어서 하는데 스탠드를 세운 후 고감도 콘텐서나 다이내믹 마이크로 픽업하거나 피아노 전용의 클립 마이크를 사용하기도 한다.



콘덴서 마이킹 / ucisounddesign.blogspot.com



클립 마이킹 / ravepubs.com

피아노의 음원들

- 1) John Cage - Sonatas and Interludes(pre pared piano)
- 2) Grand Piano Action
- 3) Upright Piano Action
- 4) Grand Piano Pedal
- 5) Upright Piano Pedal
- 6) Pink Floyd - Shine On You Crazy Diamond
- 7) 세계자동차&피아노박물관
- 8) X JAPAN - Tears LIVE 2010 크리스탈 피아노
- 9) Steinway D-274
- 10) 음악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가
(박종훈-뵘젠도르퍼 피아노)
- 11) Lang Lang Franz Liszt - La Campanella
- 12) 달성 100대 피아노 콘서트
- 13) 미스터 빈(Mr. Bean) 라이브 퍼포먼스 | 2012 런던 올림픽
- 14) 레고 그랜드 피아노
- 15) 문지영 피아니스트
- 16) 하프시코드
- 17) Basic Recording Techniques
: The Piano
- 18) 피아노 클립 마이킹



피아노 플레이 리스트

이것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피아노를 마치게 되었다. 다음에는 신의 악기 파이프 오르간이 연재된다. 🎹